

#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SPRING 2018 | VOL. 189



**봄 이야기**

희원이(5세)와 주원이(3세)가 온 1월 13일을 김진수·정은주 부부는 가족 탄생의 날로 정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공개 입양 후 부부 사이도, 입양을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도 훨씬 좋아졌다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8P 계속)

사진 | 이록 사진작가·Looks Studio

- 04 사업 소개
- 06 신규사업 소개
- 07 아름다운 행복
- 08 홀트 인터뷰
- 10 기획
- 12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4 Love In World
- 16 우리 함께 키워요
- 18 나눔이웃
- 20 나눔기업
- 22 희망풍경
- 28 홀트 게시판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9호·계간 **발행일** | 2018년 3월 9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엄민웅(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b>본부</b>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b>지방사무소</b> 서울사무소 강원사무소 경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 인천사무소 전북사무소 충청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www.kwholt.or.kr T.033)251-2344 www.kgholt.or.kr T.031)217-5999 www.gjholt.or.kr T.062)227-8877 www.dgholt.or.kr T.053)756-0183 www.bsholt.or.kr T.051)465-0224 www.icholt.or.kr T.032)424-0145 www.jbholt.or.kr T.063)288-0880 www.ccholt.or.kr T.042)586-1983
<b>부속기관</b>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1)914-6631 T.031)915-2911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전주영아원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2)363-8878 T.032)424-5839 T.032)424-1391 T.070)8210-1601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b>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b> 아름뜰 고운뜰·홀트고운학교 아침뜰 마포클로버 대전클로버 대구클로버 광주클로버	www.holtarum.or.kr T.02)334-4614 www.goun.or.kr T.031)216-9004 www.achim.or.kr T.042)585-3004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www.djclover.or.kr T.042)583-4006 www.holtlove.or.kr T.053)654-0181 www.holtlove.or.kr/gj-clover T.062)361-5900
<b>국제개발협력사업</b>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네델(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T.02)331-7085 T.02)331-7085

#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큰 별이 지는 슬픔을 느낍니다. 입양인의 아버지 김형복 박사님께서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홀트의 설립자 해리 홀트 씨와 함께 전쟁 이후 고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오셨고, 최빈국의 아이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일하시다가 1월 26일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남은 저희는 평소 고인이 아동과 장애인을 사랑하셨던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안티 입양단체 등과 함께 정부, 지자체, 법원 등에서 입양을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뀐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들고나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동과 양부모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양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또한 입양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양부모에게 받게 되어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양하며 비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아닌 양부모에게 수수료를 받는 법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홀트는 올해부터 시설에서 성장한 후 퇴소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욱 큰 꿈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 잘 적응하며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또한 미혼한부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말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미혼한부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돕는 결연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꿈을 잃지 않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홀트를 믿고 격려와 후원,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홀트는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는 기관, 어려운 이웃들이 홀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 “사랑을 행동으로”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홀트의 미션입니다.



## 홀트의 시작은 ‘사랑’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전쟁과 기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는 결연 후원을 넘어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입양 사업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부인 바다 여사와 함께 전 재산을 바쳤으며, 아이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다 숨을 거둔 해리 홀트 씨는 그가 손수 일군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묻혔습니다. 오늘날 홀트아동복지회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준 해리 홀트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입양 사업은 물론 아동, 청소년, 미혼한부모, 장애인,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까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해외 빈곤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 사업

### • 영유아 가정위탁보호

계획되지 않은 임신, 빈곤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00여 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홀트는 영유아들의 신체 · 정서 발달을 위해 1965년부터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 • 교육 및 의료 지원

아동들의 신체 · 사회적 발달 도모와 발달지체 아동들의 지능 ·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홀트의를 운영, 전문 의료진이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영아원 운영

### • 전주영아원 운영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영 · 유아를 위해 전주영아원을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 • 위기 상담 및 빈곤 미혼모자정 생활 지원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한부모와 가족, 그리고 아동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지원, 아동 장애 상담,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청소년 미혼한부모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인 홀트고운학교를 설립,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해 전국 5개 지역 (서울 · 수원 · 대전 · 대구 · 광주)에서 7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숙식과 의료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립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물품 지원 ‘365 베이비 케어 키트’, 직업 훈련 및 자립 지원 ‘캥거루 스토어’, 싱글맘 아동 양육 지원 사업 ‘갯갯한 엄마’, 안정된 아동 양육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일산복지타운 · 요양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 보호작업장 등 이용시설을 운영하며 맞춤형 재활치료와 교육훈련, 자립활동

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소리’ 장애인합창단, 홀트휠체어농구단 등 장애인 문화예술 · 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복지 사업

### •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교육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1982년부터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만 명에게 34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300명의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 홀트심리상담센터

정서 · 행동 ·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 대구, 인천, 광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심리 상담과 언어 · 놀이치료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족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하남 등 5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지역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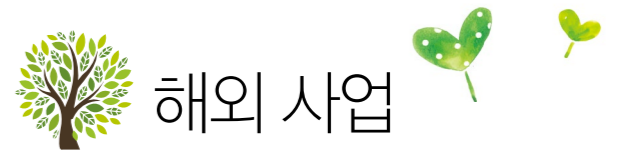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적합한 모금활동과 자원봉사를 위한 홀트후원회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가족 성장에 따른 교육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 국제개발협력 사업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홀트드림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육, 보건, 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아동 초청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사업

## 입양복지사업

### •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상담소 운영

1957년 국내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전국 9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입양을 60여 년 이상 이어온 만큼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 입양인 · 입양가정 지원 프로그램

입양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 상담과 교육, 가족 캠프, 입양가족 자조모임인 홀트한사랑회를 지원, 행복하고 건강한 입양가정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입양인 친가족 뿌리 찾기, 국외 입양인을 위한 모국 방문 및 모국 정착 지원 등 모국 문화와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 2018년 새로 시작하는 사업

### ✓ 시설외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이 시설 퇴소 이후 순조로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자립지원금과 전문심리상담, 멘토링, 캠프 등이 지원됩니다. 현재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홀트심리상담센터 서울센터 개소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서울에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의 주요 클라이언트(입양가정, 미혼한부모가정, 위기가정 등)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 홀트 해외 빈곤 청소년 장학 사업 "Dream Big 장학금"

배움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해외 빈곤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4개국에서 총 74명의 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982년부터 국내의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해외 빈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장학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맞춤형 프로젝트 '행복드림, 희망드림, 응원드림'

복지 사각지대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의료, 주거, 상담 등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혼한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 미혼한부모 인식 개선 동영상 공모전

미혼한부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한 신규 사업입니다. 미혼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으로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 아름다운 행복

#### 공모주제

- 입양으로 탄생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
-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모습과 이야기
-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 국내입양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 응모 마감 및 참가 자격

- 2018년 4월 2일 (월)까지, 입양가족 누구나

#### 공모 분야 및 형식

- 사진 : jpg 형식 (2200×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 wmv, avi 파일 (3분 내외, 여러 영상을 붙이거나 사진을 넣어 제작 가능)
- 각 분야별 최대 2점 응모 가능, 기존 수상작이나 타 공모전 수상작은 응모 불가

#### 시상 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 (1점)	50만 원	• 대상 (1점)	100만 원
• 우수상 (4점)	20만 원	• 우수상 (2점)	50만 원
• 입상 (5점)	10만 원	• 입상 (7점)	20만 원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 sayholt@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www.holt.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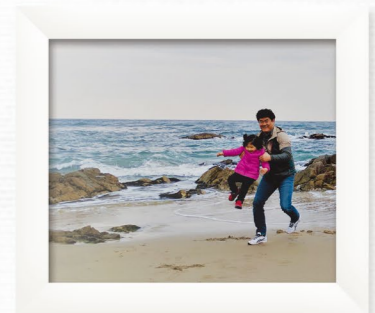
- 수상작 발표 : 2018년 4월 27일 (금) 개별 통보·홈페이지 공고
- 시상식 : 2018년 5월 11일 (금) 예정

#### 공모관련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173 / sayholt@hanmail.net

#### 유의사항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측이 갖게되며 국내입양활성화 홍보에 사용됩니다.



## 기쁨과 밝음이 가득, 1월 13일은 ‘가족 탄생의 날’

김진수 · 정은주 · 김희원(5세) · 김주원(3세) 가족

1월 13일은 희원이 · 주원이네 ‘가족 탄생의 날’입니다. 2015년, 그리고 2017년 1월 13일 천사 같은 두 딸이 김진수 · 정은주 부부의 품에 안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의 희원과 ‘밝음의 근원’이라는 뜻의 주원이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기쁨 가득한 시간들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딱 봐도 천상 여자인 희원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실 새 없는 주원이가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조명이 하나 더 켜진 듯 공간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미소가 밝고, 호기심 가득한 두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영아원 봉사활동을 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입양을 해야지’ 결심했던 정은주 씨와, 사역을 다니던 한 마을에 걸린 ‘아이는 마을이 함께 키워야합니다’라는 구호에 마음이 확 달은 김진수 씨는 여러 면에서 생각이 맞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입양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막상 정은주 씨는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잘 적응해줄까?’ 하는 고민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주재원으로 활동하는 지인이 다섯 살이 된 연장아를 입양했는데 엄마랑 엄청 닮은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늘이 저 있긴 했어요. 그리고 2~3년 후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확 달라진 거 있죠? 다소 늦게 입양되긴 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인지 그냥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깨졌고, 입양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죠.”

###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우며 아름다운 것, 입양

모든 가족이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혈연을 중시하는 이모와 외삼촌의 반대에 부딪혔고, “나중에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사람은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다”는 현실적인 걱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부부는 2년 간격으로 두 딸을 맞이했고, 그렇게 입양을 반대했던 이모와 외삼촌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우리 희원과 주원이 덕분에 입양에 대한 편견이 확 깨졌다”고. “딸은 보통 법원진행과정만 평균 3, 4개월이 걸리는데, 주원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어요. 담당 판사님은 ‘아이를 키울 부모님이 누군지 보고 싶었습니다. 잘 키워주십시오’라며 90도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부부가 함께 물어버렸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정은주 씨가 또 다시 눈물을 찍어냅니다. 훌륭한 판사님을 만나 이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우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며... “두 아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주원은 자기 주장과 표현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편인데다, 개구지게 생긴 것만큼이나 활동적이고 누구한테든 잘 안기는 편이에요. 아빠랑 외모가 많이 닮아서 보자마자 ‘내 딸이다!’ 싶었던 아기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예뻐진 거예요(웃음). 희원은 보시는 대로 천상 여자아이. 활발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차분한 면이 있고 의외로 주도적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자존감이 높고 또래보다 사회성이 한 단계 높다더군요. 친구들에게도 먼저 손 내밀어 돕는 편이고요. 외모는 엄마를 꼭 닮았죠?” 부부는 아이들이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공개 입양을 한 것도 언젠가 아이들

이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고요. “희원아, 이렇게 예쁜 희원이는 누가 낳았지?” “엄마 배에서 나왔지~” “그러면 좋는데 낳아준 분은 따로 있어.”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부부 스스로에게도 예방주사를 계속 놓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와중에도 “아이들로 인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입양 부모들은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김진수 · 정은주 부부는 가족이 완성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은 물론, 부부 간에 예민함이 줄어들고 웬만한 일은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애기 아빠는 원래 좀 무감동한 편이었는데, 감동이 많아지고 삶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을 봐도 ‘아, 산이구나’ 했는데, 아이들이 온 후로는 ‘아~ 단풍 정말 예쁘다!’라며 감동하곤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픈 부부는 입양 사진 · 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에 사진을 출품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2016년 공모전에서 희원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상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주원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한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한 겹 한 겹 쌓이는 소중한 추억으로 이 가족에게 늘 ‘기쁨’과 ‘밝음’이 충만하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HOOT



#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지난 2018년 1월 16일,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 제안 배경은 2016년에 있었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대구 사건과 포천 사건(민법 입양) 진상조사 결과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을 둔 원가정 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공성 확대를 얘기하고 있으며 입양인이 친가족 찾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기준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남인순 의원과 공익인권법재단의 소라미 변호사가 공동 발표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한다.

## 1.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과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되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부모가 함께 살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원가족에게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따르면 아이들이 원가정 내에서 보호

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원가족 보호→시설보호→가정위탁→입양’의 순으로 요보호아동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입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면서 아동보호 체계를 고려하지도 않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는, 이로 인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지켜질 수 없도록 만든 이 법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아동보호의 차선책인 입양과 시설보호를 논하기 전에 아동이 원가족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 2. 입양은 아동복지 체계 안에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진행해야 한다.

6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양은 주로 민간이 주도해 왔다. 홀트는 창립자인 해리 홀트 씨 부부가 불행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시작되었다. 이는 아동복지 차원의 접근임이 확실하다. 긴 시간동안 입양의 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외 입양을 주도해 온 입양기관은, 독자적으로 입양을 결정하고 시행했던 적이 없었다. 법에 근거하여 체계를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허가, 관리 감독을 받으며 수행해왔다. 이는 사회복지영역 안에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국가의 지도 감독 하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며, 클라이언트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며, 입양 실무의 전 과정을 정부가 개입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지원과 민감한 상담, 단계별로 총합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입양실무가 공공의 업무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분절화된 입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사회문제는 역사성을 가지고 변천을 거듭한다. 입양 또한 그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실무가 진행되었다. 60여 년 전, 처음 입양을 시작했던 시기에는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입양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현재의 사회현상 안에서 입양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입양을 60여 년 전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듯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입양인을 중심으로 한 입양삼자(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부모)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입양은 아동복지 체계 안에서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어 수행돼야 할 것이다.



## 3.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대는 입양가족의 인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이다.

제안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입양인의 친생부모와 형제자매, 3촌 이내의 친척들은 누구라도 입양가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들이 요구할 때, 입양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공개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입양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가족의 정보를 입양을 보낸 친생가족들이 언제라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친생부모뿐 아니라 입양인, 입양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공개 동의 및 거부권은 입양삼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에는 국외입양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조항이 국내입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부모와 입양기관은 이 조항에 우려를 표한다. 국가의 개입은 인권보장의 한계를 넘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입양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입양가족의 개인정보 공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 아동복지실천으로 입양을 담당해 온 입양기관으로서 사회현상의 변화와 성숙한 입양문화 형성을 위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인정하며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건의 ‘입양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제안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기관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대한 심심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향후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을 기대한다. 홀트는 아동 최우선 원칙 실현을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여 기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http://www.holt.or.kr](#)

# 지윤이 가슴 속 따뜻한 온기를



처음 지윤이(가명)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위탁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지윤이었기 때문이죠. 위탁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심장병도 치유가 어렵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갑자기 발견된 심장병...


지윤이는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홀트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어린 몸에 귀여운 외모까지, 마치 요정을 보는 것 같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위탁어머니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위탁어머니는 지윤이가 가끔 배냇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일상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윤이는 건강상태도 체중이 조금 덜 나가는 것 빼고는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모든 반사행동을 정상대로 다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자는 순한 아이였죠.



하지만 얼마 전, 신체검사에서 심장 잡음이 들려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지윤이는 출생 후에 닫히는 심방사이막에 구멍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약 25%를 차지하는 흔한 병이지만, 지윤이의 경우 꽤 큰 구멍이 발생하여 병 증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돌연사의 위험이 있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윤이에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 지윤이의 건강을 바라며...

현재 지윤이는 수술에 필요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도 지나지 않은 작디작은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있습니다. 위탁어머니는 낯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느라 놀랐는지 분유도 잘 먹지 않고 지친 듯 계속 잠을 자는 지윤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윤이는 위탁어머니만 보면 눈을 마주치며 작은 손을 내밀습니다. 이런 지윤이를 안아 주지 않을 수 없어 품에 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간병을 직접 하길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정이 들어서..."라고 말하는 위탁어머니의 눈빛에 걱정과 안쓰러움이 교차합니다.

위탁어머니는 지윤이가 수술을 잘 받으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한 다며 지윤이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탁어머니뿐 아니라 위탁가정, 홀트 선생님들 모두 지윤이의 수술이 잘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 지윤이가 성공적인 수술과 함께 좋은 예후를 보이며 모두의 기대에 보답하듯 더욱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_표미연 · 아동양육팀



1 지윤이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2 위탁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지윤이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작은 씨앗이 큰 사랑의 열매되어

올해는 홀트가 국제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만 7년이 되는 해이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몽골, 탄자니아, 네덜 4개국에서 홀트드림센터를 통해 도시 빈민 밀집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빈곤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것을 기본으로, 아이들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홀트의 노력은 열매를 맺어 크고 작은 변화가 속속 보이고 있다. 홀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8년, 올해는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했다. 빈곤지역 아동 중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힘든 장애 아동을 돕는 일에 홀트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지만, 언제나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홀트의 역사에 또 하나의 귀중한 일이 될 것을 예감했다.



캄보디아는 홀트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이다. 또한 킬링필드 이후에 나라가 재건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이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과 매우 흡사하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트라피앙 안찬 마을은 프놈펜 철거민들이 밀집해 사는 도시빈민 밀집지역이다. HIV/AIDS 감염자가 많고, 마약을 하는 주민들도 많은 우범 지역으로 캄보디아인 직원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무직이었던 주민들이 봉제 공장이나 가내 수공업업을 하고, 특특이 기사로도 일하는 등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홀트드림센터 아이들 53명이 가정 경제가 좋아져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일도 있었다. 빈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 바로 그 지역을 벗어나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



## Cambodia


트라피앙 안찬 마을에 변화가 조금씩 보일 때쯤 홀트는 지금까지 해오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약간은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30일, 홀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있던 날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모델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인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홀트는 캄보디아의 보레이국립장애아동시설(National Borei Infant and Children, 이후 NBIC)과 협약을 맺고 이곳의 아이 중 일부를 결연 후원하고, 특수 휠체어 50대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낮아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상당수 길에 유기하고 있다. 이 유기된 아동 중 130명을 정부 기관인 NBIC에서 보살피고 있다. 충분한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직원 1인당 10명이 넘는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 유형별로 물리치료를 하거나 작업치료, 특수 교육 등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기대하기 힘들다.

홀트가 장애인 시설과 협력하기로 한 데에는, 멀리 미국의 전 홀트인터내셔널 직원인 벤티 권(Betsey Guinn)의 공이 컸다. 벤티 권은 장애 아동에게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생활하던 장애아동을 1986년에 입양하여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이기도 하다. 그녀는 어머니(Judith Heinson Guinn)와 함께 80년대부터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특수 휠체어를 구해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있는 장애아동을 위해 보내주는 등, 한국 장애인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벤티 권은 캄보디아 NBIC기관을 홀트에서 가장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지원을 제안해왔다. 홀트는 2017년 9월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해 캄보디아 기관을 직접 방문하였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NBIC기관과 연결되어 아동결연과 특수 휠체어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작은 협력으로 시작된 사랑의 손길이 세계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장애 아동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리



1 보레이국립장애아동시설과 홀트의 협약식  
2 장애아동과 함께 있는 벤티 권

라 믿고, 또 우리가 그러했듯 캄보디아도 후에는 타국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선순환의 고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아이들의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장애 여부를 떠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Love in Actioner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 한 걸음씩 내딛는 희망의 발걸음

아름뜰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와 함께 곳곳하게 살아가려는 미혼한부모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아무리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해도 미혼한부모에게 ‘자립’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아이 아빠나 가족과의 단절이 주는 상처를 이겨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하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자립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미연(가명)씨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을 취재하던 중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는 분 중에 모법적으로 자립을 이룬 사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꼭 만나보고 싶어 인터뷰를 청하게 되었는데요. 설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아름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미연이고, 제 아들 준영(가명)이에요.” 크고 까만 눈동자가 서로 꼭 닮은 모자(母子)입니다.

미연 씨는 출산 후 아이가 3개월 무렵 아름뜰로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실력을 쌓기 위해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업을 이어오던 아이 아빠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 아빠와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로가 어렸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집을 마련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양쪽 부모님 문제도, 모두가 싸움의 연속이었고 서로가 지쳐갔죠. 외국에서 갑자기 알게 된 임신 사실에 당황한 저는 아이 아빠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 후에는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아름뜰에서 지낸 2년 동안 아이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배우고, 일해서 ‘자립’하겠다는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미연 씨에게 아름뜰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름뜰에서 지내면서 도움 받은 게 정말 많아요. 아이 이유식 만드는 법부터, 예방접종, 아이돌봄 지원 등등. 가장 감사한 건 힘들 때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도 아름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 가는 집에서 사용할 세탁기랑 냉장고도 사주셨어요(웃음).”

미연 씨는 작년에 아름뜰의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영어공부도 하고,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도 취득했습니다. 자립에 필요한 증자돈을 어떻게 모으고, 퇴소 후 주거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경제교육도 받았고요.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을 받았고, 전세대출 지원을 받으면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에서 공공근로도 했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해냈는지 정말 대단하죠?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주저앉아 울기보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불평 대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준영이가 순하게 잘 자랐어요. 제가 주로 주말에 학원을 다녀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잘 놀고, 집에 와서 잘 자고 해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며칠의 휴가가 생긴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 지 물어보니 대뜸 택배를 직접 받고 싶다고 말하는 미연 씨. “지금 이사 가는 집이 주택이라 택배를 받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주민센터가 없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휴가가 생기면 집에서 택배를 받고 싶어요. 택배기사님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휴가가 생기면 여행을 가거나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미연 씨의 답은 꽤 현실적입니다. “전 이상적이지 않아요. 2년 뒤에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세자금을 조금 더 마련해서 이사를 갈 생각이예요. 전세자금 마련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예요. 눈앞에 있는 일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제 스스로 해나가고 싶어요.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요.”

아이의 이름을 힘주어 발음하는 그녀에게서 밝은 희망이 보입니다. 거짓말처럼 지난한 겨울은 물러가고, 알싸한 바람에 꽃향기가 묻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미연 씨와 준영이의 앞날에도 따뜻함만 가득하길, 살랑이는 봄바람에 이들의 행복을 그려봅니다. 

# 두 팔로 모두를 품어 안는 삶을 꿈꾸다

(주)디근 김두연 대표



홀트에서 진행하는 해외입양인 초청 행사에서 2016년, 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캘리그래피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진행했던 분들 중 한 분이 바로 한글을 통해 수제도장과 머그컵 등 생활용품과 예술상품을 생산하는 (주)디근의 김두연 대표인데요,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 고자 한글 이름으로 수제도장을 선물하고 있기도 한 그녀에게 나눔이란 무 엇인지 들어봤습니다.



## 입양아들에게 정체성을 새겨줄 수제 도장들

아주 오래 전부터 나눔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먼저 가장 가까이 에 있는 자신의 후배이자 제자들인 서예 전공자들에게 눈을 돌렸 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위해 회사를 설 립했고, '사회적 기업'으로 모토를 잡았으며, 소외 계층에 해당되 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미혼한부모 시설 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하던 중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를 발견해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능기부를 한 건 홀트가 처음이에요. 2011년 제가 먼저 홀트에 연락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는데, 수많은 단체 중 왜 홀트에 연 락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학생 때 홀트에 자원봉 사 하러 갔던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시작한 입양아 수제도장 선물 제작은 그녀가 홀트를 통해 시작한 첫 나눔활동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 장을 보여 '난 누구다,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 로 생각한 아이터치입니다. 미혼한부모들이 떠날 아이들을 위해 직 접 도장에 이름을 새기는 수업도 진행하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매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해' '미안해' 등 한 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어 그 작은 도장에 빼곡하게 글을 새겨 넣는 걸 보면 그 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두연 대표가 수제도 장을 선물하는 건 1년에 평균 2,000개 정도. 회사가 휘청거릴 정 도로 힘든 적도 있지만, 홀트의 활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임이 분명하니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을 수밖에 없는 것...사랑

홀트와 함께한 활동 중 그녀는 2016년 '입양아들의 뿌리 찾기 초청 행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입양아들을 대상으 로 한글 캘리그래피와 수제도장 수업을 했던 그 시간을 결코 잊 지 못한다고...

"당시 장애를 지닌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양쪽 팔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과연 작업이 가능할까 우려했는데, 거드랑 이에 조각칼을 낀 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뼈뿔뼈뿔하지만

자신의 한국 이름을 새겨나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어찌나 감동 스러운지... 더욱이 그 옆에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응원하던 부모님과 남편을 보며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부 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런 불편함을 지닌 사람을 아내로 맞은 남편은 얼마나 큰 사랑을 지닌 걸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감 동적인 수업은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김두연 대표는 삶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입양아의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존경을 품게 됐고, '사랑'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게 되었 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아마 진정한 사랑이란 그렇 듯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아끼 며 함께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녀는 요즘 홀트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관찰소, 갱생 보호시설, 구치소, 치매 요양원, 다문화 가족 등 보다 많은 사람 들에게 나눔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칠고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자신의 손끝에 서 탄생한 작품을 통해 '저도 할 수 있군요!'라며 기뻐하는 모습 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취미가 뭐냐고 묻곤 해요. 없더라고요. 친구가 있냐고 묻기도 해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일과 나 눘이 제 삶 그 자체예요. 그러니 힘들 일이 전혀 없어요. 제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다, 이런 나눔도 가능하 다는 걸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걸 통해 한글을 세계에 알 리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인터뷰 며칠 후, 김두연 대표는 호주 시드니로 떠났습니다. 큰 축제에 초대받아 수제도장과 한글 캘리그래피 머물러 작업을 하 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늘 한글로 작업하는 (주)디근 의 부스가 가장 북적이고 호응이 좋으며 활짝 웃는 김두연 대표. 그녀가 품어 안을 사랑이 앞으로 더욱 널리 퍼지도록 모두 응원해주세요.



# 한샘과 함께 하는 꿈의 작은 도서관



똑딱똑딱 쿵쿵쿵! 방학 중이라 홀트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데 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며칠째 바쁜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네요! 방학 전에는 문이 굳게 닫혀있었는데 지금은 활짝 열린 채 많은 사람들과 알록달록 예쁜 색이 칠해진 가구들이 오고 갑니다. 홀트학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 오늘은 개학날!

어김없이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습니다. 보통대로라면 천천히 밥을 먹고 교실에 가서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밥을 먹는 동안 점심을 급하게 먹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그곳, 창고! 아니 도서관입니다! 얼굴에 웃음 한가득 담은 지수(가명)는 재빨리 신발을 문 밖으로 벗어 놓고 책장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내부를 한 바퀴 돌더니 예쁜 동물그림이 가득한 책을 집어 들어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에 쓰옥 들어가 책을 펼칩니다. 어느새 5교시 시작종이 울렸네요! 얼른 교실로 향해야 할 텐데, 꿈작도 하지 않고 그림책의 동물들과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지수입니다.

##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홀트학교에 첫 도서관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홀트학교에서는 도서관 마련을 위해 후원처를 열심히 찾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좋아하는 홀트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간절한 마음을 들었나요? 우리의 소원을 기업 한샘에서 듣고, 홀트학교에 예쁜 도서관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 꿈의 작은 도서관, with 한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옆에 화장실을 함께 지으면 어떨까요?”, “내부는 밝고 따뜻한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점자책과 미디어시설 등 장애인 특수책은 되도록 많이 구비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들 나이에 맞는 다양한 책도요!” 도서관 건립이 결정되자마자 한샘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홀트학교 선생님은 들뜬 목소리로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고민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똑딱똑딱 공사하는 소리보다



아름다운 청소년을 선발, 꿈지원금(장학금)을 지원해준 한샘

더 빠르게 오고가는 통화 속에서 완성된 한샘과 함께 하는 꿈의 작은 도서관. 아침저녁 많은 학생들로 도서관 내부가 북적북적한 모습을 지켜보는 한샘 임직원과 홀트 선생님은 아이들보다 더 신나고 벅차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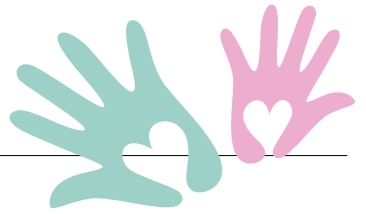
## 함께 만드는 기적

한국의 종합 홈 인테리어 1위, 주거환경 부문의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한샘과 홀트의 인연은 201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 합창단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꿈을 위한 장애인 특수차량 후원을 시작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실 마련, 꿈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지원, 체조선수 지윤이(가명)를 위한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우리 이웃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류발전에 공헌 한다'는 사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샘은 특히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발굴하여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고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의 업을 중심으로 따뜻한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가족의 휴식과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의 이웃 한샘! 함께해서 더 기쁘고, 함께이기에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샘과 함께 걸어갈 뜻깊고 희망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 거리의 중심에서 나눔을 만나다!

대면모금을 통해 천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의 중심에서 나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라고 외치며 홀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바로 홀트 대면모금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지역에서 민트색 옷을 입고 대면모금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은 다양한 곳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나눔에 동참하는 천사가 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 가까이에서, 후원자와 소통하는 방법

밝게 웃는 대면모금 활동가의 미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지만 유독 관심을 가지고 버스 앞에 멈춰 서서 홀트의 다양한 나눔활동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트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들으며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까지... 활동가의 설명을 듣고나면 거리의 시민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후원자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F2F(Face to Face)모금이라고도 하는 이 대면모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금방식이기도 합니다. 대면모금은 기관의 사업과 그것이 필요한 후원자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일반적인 소통방법입니다. 거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현장가들은 후원자들의 아름다운 사연을 많이 접합니다.

## 천사들의 나눔 이야기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비록 나의 삶은 힘겹지만 후원을 통해 더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해 후원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자신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키우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었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어르신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손이 얼어서 후원신청서를 못 쓰니, 나 대신 후원신청서 좀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대면모금 활동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로 어렵게 살았던 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분 등 눈물로 후원신청을 하신 분의 신청서에는 상처를 넘은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대면모금을 통해 후원하신 한 후원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단아한 목소리로 거리모금을 하는 활동가의 따뜻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대면모금으로 후원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조카가 유전질환이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마침 거리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우리 조카 생각이 참 많이 났었답니다. 사실 제가 암투병 중인데 삶에서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서 더 많은 아동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 후원자와 대화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면모금 활동가들은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줄 거리의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눔을 외치며 찾는 거리의 천사들, 바로 여러분이 또 하나의 천사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대면모금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쪽~! Holt



▲왼쪽부터 최지혜(국내입양팀) · 박소현(아동양육팀) · 배현정(예산회계팀) · 이동은(나눔지원팀)

## 첫마음으로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 앞을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 봄에 홀트에도 영롱한 첫 마음을 가진 신입사원 네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홀트에 첫 발을 내딛은 멋진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 홍보팀 | 자신의 키워드 3개를 넣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소현 |**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순간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배현정 |** 저는 '밝고' 유머 넘치며, '의리'가 있어서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저를 '편안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웃음).

**| 이동은 |** '웃음'이 많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향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어요.

**| 최지혜 |** 저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사랑, 나눔, 채움'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랑을 가득 채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홍보팀 | 담당 업무 소개와, 일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박소현 |** 홀트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양육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날 때까지 위탁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입사 첫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웃음).

**| 배현정 |** 예산회계팀에서 법인과 수익사업의 예산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먼발치에서 응원해왔던 홀트의 구성원이 되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회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하. 제 업무는 정확성이 요구되는 직무라서 실수하지 않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 이동은 |** 저는 나눔지원팀에서 대면모금과 후원자 전화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홀트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서 '입사하길 잘 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직접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홀트에 대해 더 배우고, 스스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최지혜 |** 국내입양팀에서 친부모상담을 배우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사례를 접하고 상담기술을 배우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 아직 크지 않지만, 작은 업무도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해요~

**| 홍보팀 | 홀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박소현 |** 홀트 입양가정지원센터에서 인턴을 하면서 가장아장 걷는 아이들부터 자신의 뿌리를 찾는 입양인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홀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 배현정 |** 학생 시절, 외삼촌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아이로 인해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영향으로 아동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가졌던 입양에 대한 관심이 홀트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 이동은 |**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한 문장이 홀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어요. 일시적 후원이 아닌 '가정'이란 울타리를 선물하는 홀트의 다양한 사업이 눈에 들어왔고, 여기에서 일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지혜 |** 2015년 홀트장학생서포터를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후 홀트와 가까워질수록 더 큰 매력을 느꼈어요(웃음). 아동이 가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부터 장애아동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일까지...이 귀한 사역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 홍보팀 |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 박소현 |** 'Everything counts'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축적되어 나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하고 부딪혀 보면서 더욱 성장할 거예요!

**| 배현정 |**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즐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웃음).

**| 이동은 |** '오늘 밤 그대의 꿈은 황홀하기를, 내일 그대의 꿈은 현실이 되기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는 문장입니다.

**| 최지혜 |** 학창시절부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좋아했어요(웃음). 고난이 와도 다시 해가 뜰 것을 알기에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밝은 에너지를 가진 홀트의 신입사원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활기찬 기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니 홀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의 열정과 마음가짐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신입사원 여러분! 파이팅!! 

# 부모와 아이들 모두 방학을 기다리는 이유 늘해랑학교



늘해랑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학 중 계절학교입니다. '늘해랑'은 '늘 해와 같이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학기 중 하루 하루를 바쁘게 지내던 특수학급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집에만 있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심심하게만 느껴 집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집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즐거운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늘해랑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활동으로 알찬 방학을!

늘해랑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알찬 방학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프로그램은 복지관 교육실(취미교실, 특수체육실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신체발달 능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예활동, 요리활동, 음악활동, 체육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공예활동은 티슈케이스, 에코백, 파우치 등을 만들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일상 생활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산법을 배우고, 직접 구매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역할놀이, 마트장보기 활동을 제공합니다. 실외프로그램은 주 2회 진행되며, 농촌체험, 박물관, 영화관, 동물원 등을 견학하여 아이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외부체험은 단순히 흥미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교육과 성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민안전체험관과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아이들 또한 늘해랑학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교할 때면 선생님을 반기며,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뭐해요?, 내일은 어디가요?"라고 물어보며 늘해랑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늘해랑학교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같은 생각일 거 같아요. 부모 없이 아이 스스로 찾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늘해랑학교는 평소 아이와 함께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곳저곳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꼼꼼하게 살펴 경험시켜 주었어요."  
"날마다 늘해랑학교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 거리를 풀어놓을 때면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 늘해랑학교 이용자 부모님 후기

## 부모가 추천하는 프로그램

방학 중에도 일터에 나가야하는 탓에 방학마다 함께해주지 못하고 지루해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한숨을 쉬시는 부모님들... 늘해랑학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학이 되기 전부터 늘해랑학교를 기다리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복지관으로 전화를 합니다. 늘해랑학교가 시작한 뒤에는 아침마다 늘해랑학교를 가자고 재촉하는 아이들, 늘해랑학교를 다녀오면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바로 잠드는 아이들을 보면 이번 방학은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평소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활동을 나가기에 어려움이 많은 부모님들은 늘해랑학교에서 진행되는 외부체험활동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해랑학교를 처음 이용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몰랐으며, 주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늘해랑학교가 끝나는 날이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발표회에서는 아이들이 3주간 활동한 내용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영상 안에 자신이 나왔다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강사들에게 감사함을 느끼시는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3주가 흘러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강사들을 보며 '이번 늘해랑학교도 아이들에게 알차고 즐거운 방학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늘해랑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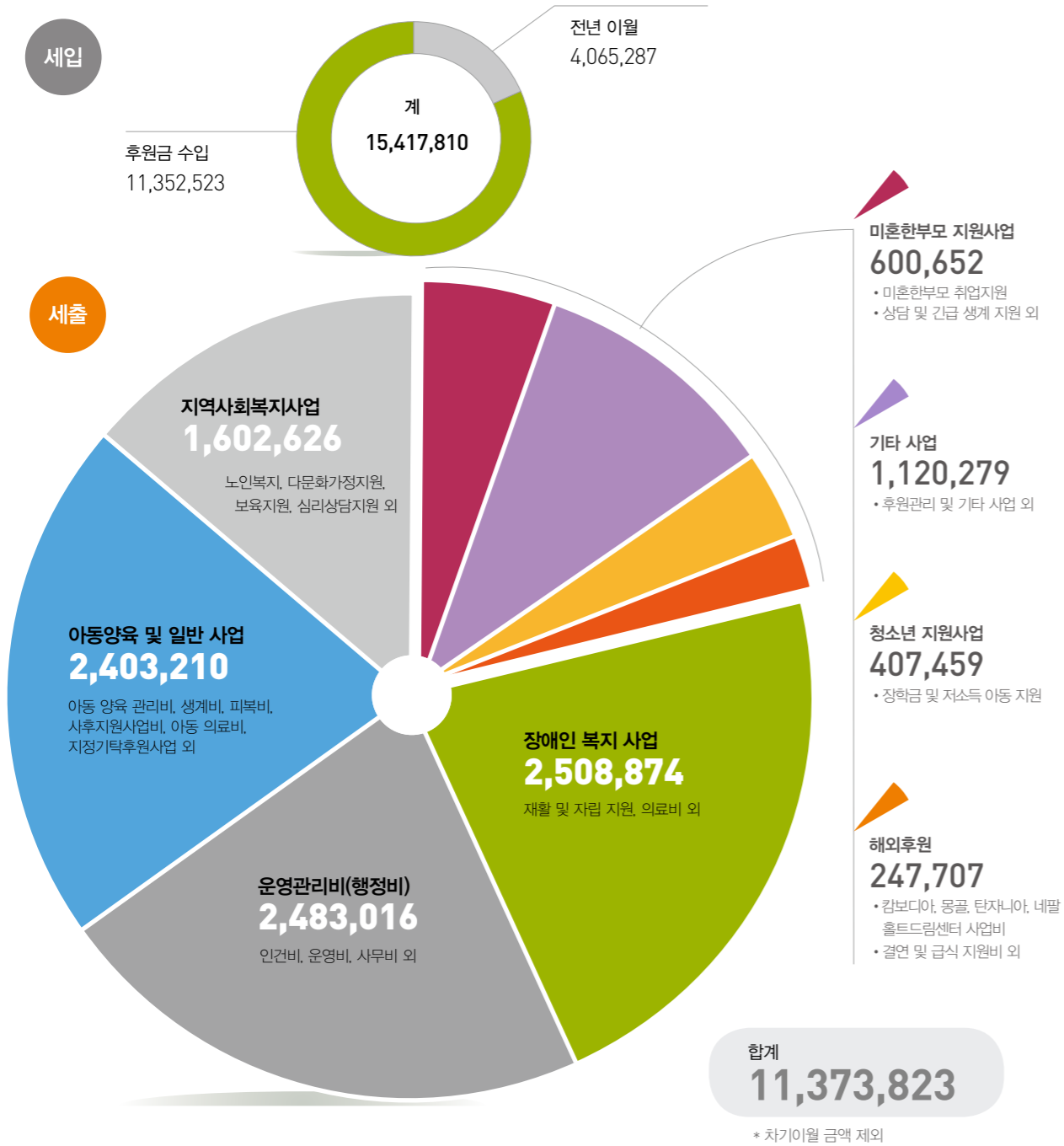
글\_이용성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 2017 후원금 사용 보고

2017년 홀트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들로 국내·외에 나눔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홀트는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홀트를 믿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2017.1.1~12.31) 단위: 천원



## 2017 홀트마을 나눔 이야기

### 국내 사업

296/305

#### 296명 아동양육/ 305명 입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305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313/183

#### 313명 장애인 지원/ 183명 장애인학교 교육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홀트학교에서 장애인 생활 및 재활, 교육 등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21,096

#### 21,096명 지역사회복지제공

전국 5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급식 지원,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25

#### 525명 미혼한부모 및 아동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립을 꿈꾸게 하고, 육아지원금 및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318/379,865,000

#### 318명에게 장학지원

전국 저소득층 아동과 대학생 31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 해외 사업

414

#### 홀트드림센터 414명 아동 지원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에 있는 홀트드림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했고, 급식 및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중원주식회사, 캄보디아에 여성용품 지원



1월 29일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찾아 3억 2천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물품은 홀트드림센터가 상주하고 있는 트라피앙 안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중원주식회사는 입양대기아동을 위해서도 꾸준히 아동용품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키티버니포니, 기부마켓 후원금 전달



1월 17일,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 (kittybunnypony)는 기부마켓의 수익금을 후원하였습니다. 키티버니포니는 2014년부터 매년 연말 기부마켓을 열어 수익금을 홀트의 미혼한부모 가정과 아동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여성위원회 후원금 전달



1월 15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여성위원회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여성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호 위원장과 송귀영 위원장이 방문

하여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홀트직원에게 방문하여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입양대기아동들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아트화장품, 미혼한부모가정에 후원물품 지원



12월 29일 모아트화장품과 미혼한부모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은 캄거루스토어와 미혼한부모가정에 전달되어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JW 메리어트 서울,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



12월 22일 JW 메리어트 서울에서는 12월 한 달간 호텔 내 베이커리 샵 '더 델리카테스'에서 판매한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쿠키 등의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중증 장애 아동의 위관영양식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한우협회와 롯데GRS, '행복배달' 물품후원



12월 20일 전국한우협회와 롯데GRS가 '행복배달' 결식아동을 지원 사업을 위한 한우불고기

버거 1000세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롯데GRS와 홀트가 체결한 결식아동 지원사업인 '행복배달' 협약의 일환으로, 버거세트는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페라리 공식 수입판매사 ㈜FMK 기부금전달식



12월 13일 페라리 공식 수입판매사인 (주)FMK가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FMK는 작년 10월 개최된 고객대상 행사 참가비에 회사의 성금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입양대기아동의 양육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성복 브랜드 NS런던포그, 사회공헌 협약



12월 6일, 남성복 브랜드 NS런던포그와 사회공헌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NS런던포그는 전국 100여 개의 지점에서 소핑백 판매비용 후원하고, 소핑백에 홀트를 알리는 문구를 담아 홀트를 알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본부

올리브영, 디어패밀리박스 봉사 참여

2월 2일과 8일, 이틀에 걸쳐 CJ올리브네트웍스 신입직원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디어패밀리박스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리브영 직원들은 입양대기아동에게 걸음마 신발을 선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행복한교회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협약



1월 30일 행복한교회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공간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복한교회는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가 상주하는 트라피앙 안전 마을에 있는 현지 교회입니다. 평일에는 비어있는 교회 교육관을 사용하게 되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네트워크, 몽골 게르주택 건립지원



12월 26일 봉사단체 천사네트워크와 몽골 빈곤 무주택 아동가정에 게르주택(몽골 이동식 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천사네트워크는 네팔 초등학교 준공을 시작으로 홀트의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땅굴시장 기부금 전달식



12월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땅굴시장을 통해 모인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가정의 주거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신 이혜선, 양승봉 부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사무소

대구사무소, 한사랑회 부모교육



12월 9일 홀트한사랑회 대구·경북지부 입학 후 부모교육과 명랑운동회, 아나바다장터가 분리중합복합자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한사랑회는 아나바다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을 홀트의 아동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충청사무소, 위탁모 정년퇴임식 및 백일잔치



충청사무소에서는 12월 다음같이가지치 with 카카오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당신이 만든 특별한 백일이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오랜 기간 아동 양육에 애써주신 김경자 위탁어머님의 정년퇴임식을 함께 하여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사무소, 한사랑회 인천지역 송년모임



12월 16일 '홀트한사랑회 인천지역 송년모임'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20여 가정의 입양가족이 함께 모여 특강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서로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산복지타운

영혼의 소리로 공연소식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소리로'가 1월 18일에 열린 '평창 패럴림픽 G-50페스티벌' 행사에 초청을 받아 패럴림픽 선수 및 가족, 주요인사,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음'과 업무협약



1월 14일 홀트타운과 법률사무소 '지음'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음'은 홀트타운의 법률지원기관으로 활동하고, 홀트타운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HOLT NEWS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장애인복지관, 콜링워터밴드 공연



12월 5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콜링워터밴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콜링워터밴드는 고양성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이 모여 만든 밴드입니다. 보컬 2명, 키보드 1명, 베이스 1명, 드럼 2명으로 구성된 일곱 명의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대구복지관, 사랑의 연탄나눔



12월 2일, 홀트 가족자원봉사단 전체활동으로 월동맞이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홀트가족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직접 후원금을 모아 진행하였고, 연탄을 직접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홀트가족자원봉사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운봉복지관, 일일카페 및 바자회



12월 13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일카페 및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셨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1층에서 바자회를 통해 물건도 구입하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하남복지관, '하하족제' 진행



12월 16일 하남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남주민 하나로-하하족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전 층을 개방한 열린 행사로, 만들기 체험활동, 마술&버블 공연, 주민교육, 먹거리 마당 등 다양한 체험거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수영복지관, 성탄절 & 포인트 데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복지관 이용 아동들과 함께 성탄절 & 포인트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종 체험들과 마켓,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뜰, 오페라 콘서트

1월 31일 '콜미 오페라 콤미 싱어즈'의 오페라 콘서트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오페라 공작소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미혼한부모 19명으로 구성된 오페라



합창팀 '콜미 싱어즈'는 음악치료를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아름뜰, 미혼한부모 문화나들이

아름뜰에서는 미혼한부모가 잠시라도 육아에서 벗어나 여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12월 23일, 뮤지컬을 관람하고 저녁을 먹으며 육아에 지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대구클로버, 미(美)모(母)들의 송년파티



대구클로버에서는 12월 28일, 송년파티를 진행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덕담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석고방향제를 만들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대전클로버, 홈커밍데이



12월 2일 대전클로버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대전클로버를 퇴소한 31명의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류도 하고,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말하기 대회



12월 1일 '2017년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진행되었습니다. 입문반·고급반 수강생 12명과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 중동어린이집, 졸업캠프



올해 초등학교에 가는 만5세 친구들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졸업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피자파티와 보물찾기, 영화감상, 오이 마사지 등을 하며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마포어린이집, 키즈월드 견학



12월 15일에 일산 킷엑스 '산타잔치'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공간 감각과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또한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주변 이웃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홀트어린이집, 피자파티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졸업을 앞둔 만5세반 유아들의 피자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윗놀이, 보물찾기, 부모님 편지 읽기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은방울어린이집, 작은 발표회



12월 22일 은방울어린이집 작은발표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은방울어린이집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과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관람하면서 자녀의 성장모습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심리상담센터

### 대구심리상담센터, 사례관리교육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로 12월 28일, 대구 지역 내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사례관리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문경숙 전문상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만족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후원회

#### 광주후원회, 홀트드림센터 자원봉사



1월 4일부터 4박 6일간 광주후원회 회장(정호례)외 회원 14명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광주후원회 회원들은 드림센터 아이들에게 식사를 손수 만들어 나눠주고, 결연하고 있는 학생 3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 후원사업 소개

####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중소상공인 후원 캠페인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는  
아이사랑공간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득 찬 공간처럼 풍성한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 아이사랑공간이란?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중/소 자영업, 학교 등)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참여문의 /  
**02-331-7146**

TASTY VOYAGE™

Rucipello

루치펠로코리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



### 하루 세 번, 입속 클렌징 케어

천연유래성분이 함유된 루치펠로의 치약과  
마우스워시의 부드럽고 풍부한 향이 당신의  
숨결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